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7033.92	↑ 코스닥	836.92
	(-17.72)		(+6.55)
↑ 금리	3.930	↑ 환율	1340.55
	(+0.020)		(+4.45)

GNI 4만 달러 장밋빛? 실질임금 후퇴 ‘괴리’

명목성장률 20% 증가 등 긍정전망 반도체 외 타산업 임금상승 미지수
한은 “효과적인 정책조합 필요”

정부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의 4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언급했다. 긍정 전망의 이유로 명목 성장률의 20%대 증가 및 가계의 소득개선 등을 들었다. 한국은행의 경우,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파급력이 가계부문에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비 증가에 따른 물가 급등 우려도 동시에 제시했다.

관건은 가계 소득의 고른 성장 여부다. 호황기의 반도체 외 타 산업부문 종사자들의 호주머니도 두둑해질지는 미지수다.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 지표에서 드러난다. 2분기 평균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7만 원이었다. 연 4044만 원에 그친다. ‘4만 달러’는 10월 미화 대비 원화 환율 기준 5340만 원이다. ‘장밋빛’ 관측과 ‘현장’ 간 이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구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분기 경장 국내총생산(GDP)

이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했다.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9일) 발표된 8월 취업자 수도 전년동기 대비 18만4000명 증가해 중동전장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또 “8월말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도 했다.

향후 정책방향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더욱 경제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 명목성장률이 20%를 상회한 점을 부각했다. 명목성장률의 급등은, 과거와는 달리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이끈 것으로 평가했다.

교역조건 개선은 기업의 수익 증가로 이어졌다.

〈2면에 계속〉/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물가상승 압력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이용객이 주유하고 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 달러 선을 넘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뉴시스

19년 고집 접은 애플, 삼성과 폴더블 격돌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

갤럭시 Z 폴드8처럼 책 펼친 형태 폴드8이 53g 가볍고, 0.7mm 얇아 329만원, 삼성보다 100만원 비싸

애플이 아이폰18 프로 시리즈를 비롯한 신제품을 공개한 가운데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를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7년간 시장을 선점해온 폴더블폰에 애플까지 뛰어들면서 양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애플파크에서 아이폰 듀오와 아이폰18 프로·프로 맥스, 애플워치 시리즈12·울트라4, 에어팟5 등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아이폰 듀오는 애플이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 선보인 폴더블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 Z 폴드8과 마찬가지로 책처럼 좌우로 펼치는 북타입 형태로, 두 회사가 같은 폼팩터를 놓고 직접 경쟁하게 됐다.

두 제품의 내부 화면은 모두 7.6인치다. 외부 화면도 아이폰 듀오 5.4인치, 폴드8 5.5인치로 비슷하다. 다만 휴대성에서는 차이가 난다. 폴드8은 무게 201g, 펼쳤을 때 두께 4.5mm로 아이폰 듀오의 254g, 5.2mm보다 53g 가볍고 0.7mm 얇다.

삼성전자는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제품을 거듭하며 폴더블의 약점으로 지적돼온 무게와 두께를 줄여왔다. 올해 폴드8에서도 경량·슬림화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첫 제품을 내놓은 애플과의 하드웨어 경쟁에서 선점 효과를 이어갈지가 관심사다.



존 터너스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026년 9월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애플 캠퍼스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아이폰 듀오를 선보이고 있다. /AP·뉴시스

애플은 사용성과 기존 아이폰 생태계로 맞선다. 아이폰 듀오는 두 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하거나 같은 앱의 창을 두 개 띄우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 연내에는 USB-C 방식 애플펜슬도 사용할 수 있다. 10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힌지와 나노텍처 마감 등을 적용해 폴더블폰의 내구성을 높이고 화면 주름의 가시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가격에서도 양사는 차이를 보였다. 아이폰 듀오 256GB 모델의 국내 출고가는 329만원이다. 같은 용량의 갤럭시 Z 폴드8은 227만8100원으로 아이폰 듀오가 101만1900원 높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256GB 모델(257만7300원)과 비교해도 약 71만원 비싸다.

성능과 발열 관리도 경쟁 요소다. 아이폰 듀오는 2나노 공정 기반 A20 프로와 전용 베이퍼 챔버를 적용해 고부하 작업에서 성능 저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8에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

리트5세대가 탑재됐다. 배터리는 애플이 내부 화면 기준 최대 31시간, 외부 화면 기준 최대 44시간의 동영상 재생 시간을 제시했고, 삼성전자는 폴드8이 최대 26시간 동영상 재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높은 가격에도 기존 아이폰 이용자를 폴더블 시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의 관건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기존 폴더블 업체에 더해 충성도 높은 이용자층을 보유한 애플까지 경쟁 상대로 맞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누적 출하량이 1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제조사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38%, 애플 25%, 화웨이 22%로 전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이폰 듀오는 휴대폰과 아이패드의 역할을 하나의 기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이 크다”며 “실제 출시 이후에는 디자인의 완성도, 무게와 두께, 배터리 수명 등이 삼성전자 제품과 비교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얇고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게와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의 충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중요하고, 가격에 따라 일부 소비자가 삼성전자 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가 여는 혁신의 물류·모빌리티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AX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AI는 물류와 모빌리티의 생산성, 효율성, 운영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는 물류·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AX는 비용, 효율, 탄소중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AI→빅데이터→이동의 최적화→에너지 절감→탄소감축→지속가능한 미래 물류·모빌리티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기 위해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1번째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 ◆ 행사명 :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
- ◆ 일시 : 2026년 9월16일(수) 14~17시(내빈 티타임 13시30분~14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문의 :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與 법사위, 선관위특검 발족 하루만에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발의 /사진 뉴시스
▲국힘 “與, 용혜인 청문회 파행 시도…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만들려 해”

▲국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졸속 레버리지ETF 국민 피해 54조”
▲“파주 냉동창고 살인, 위조 상품권 조직과 카페 사장의 연관성 살펴야”

▲교사노조 “현장 외면한 ‘초등 저학년 3시 학교’ 즉각 중단해야”
▲신당역 사건 4주기…“여전히 젠더폭력 반복, 2인1조 미흡”